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본 생태 신학

배정훈*

1. 서론

생태 신학¹⁾을 논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는 분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생물을 다스린다. 자연은 피조물로서 하늘, 바다, 땅의 공간과 공간을 채우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인간과 자연은 피조물이다. 인간과 자연은 같은 피조물이지만 서로 구분된다. 자연이 인간에 의하여 파괴되는 생태학적인 위기 가운데 생태의 회복을 위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생태 신학이 시작된다.

생태계의 위기를 기독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린 화이트(Lynn White, Jr.)의 글에서부터 시작한다.²⁾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책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생태학(ecology)에서 접두어 “eco”는 고대 그리스어로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집에 관한 연구이다. 생태학(Ökologie)이라는 말은 1866년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에 의하여 “둘러싼 외부세계와 유기체의 관계에 대한 학문”을 묘사하기 위하여 처음 들어왔다. J. Moltman, “Ökologie,” Gerhard Müller, Horst Balz, and Gerhard Krause, eds.,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25 (Berlin: De Gruyter, 2000), 36; 조병하, “아우구스티노의 창조 이해,”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 교회사회학회 엮음, 『창조신앙 생태영성』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10), 81에서 재인용.
- 2)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이 글은 다음의 책에서 번역되어 첨부되었다. 린 화이트,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 프란시스 셰퍼 편, 『환경오염과 죽음』, 김진홍 옮김 (서울: 생명의

이 서구 기독교에 있다고 보는 린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첫째로, 기독교가 자연 만물 안에 영이 깃들었다고 하는 물활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였다.³⁾ 둘째로, 기독교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강조한다.⁴⁾ 셋째로,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과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여 자연과 물질의 지위를 하락시켰다.⁵⁾ 그는 생태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기독교에 돌린다.

환경 문제의 대두는 자연을 대하는 독특한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데, 그 태도는 기독교 교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기본적인 가치 체계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를 갖고 있지

말씀사, 1995), 88-94. 생태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 신학과 성서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게 돌린 다른 학자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K. Löwith, *Vorträge und Abhandlungen. Zur Kritik der christlichen Überlieferung* (Stuttgart: W. Kohlhammer, 1966); C. Amery, *Das Ende der Vorsehung. Die gnadenlosen Folgen des Christentums* (Hamburg: Rowohlt, 1972); E. Drewermann, *Der tödliche Fortschritt. Von der Zerstörung der Erde und des Menschen im Erbe des Christentums*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92).

- 3) 고대 세계에서 자연환경 안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정령 신앙과 자연 숭배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자연환경은 신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자연세계의 탈신성화를 초래하였고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다. 참조,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35. “자연의 대상물 속에 있으면서 인간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주었던 예전의 정령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정령에 대한 인간의 실제적인 독점이 확실해졌다.”;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92.
- 4) 화이트에 따르면 기독교, 특히 서양적 형태의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이다. 기독교는 아시아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하였다.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91.
- 5) 특히 이러한 주장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원천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초월성과 정당한 지배권이라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서양의 주의주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94.

않다는 기독교의 교훈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생태계의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⁶⁾

그의 관심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인간이 파괴한 자연의 구원처럼 보인다. 그는 성 프랜시스(Francis of Assisi)가 자연을 파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형제처럼 대한 행동에서 그를 자연과 인간의 동일화를 실천한 인물로 보았다.⁷⁾ 그는 인간을 자연과 동일화하여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자연을 구원하려고 시도한다. 더구나 물질론적인 세계관을 선호하여 하나님과 자연의 구분이 모호한 범신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생태학적인 위기라는 현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성서가 자연을 파괴하도록 신학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다. 자연의 파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타났다.⁸⁾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기독교가 인간 중심이라는 비판을 견뎌야 한다.⁹⁾

6)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98.

7)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96.

8) "현대 세계의 위기는 자연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자연 과학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과 초능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요구에 기인한다. 이 욕구는 그리스도교의 문화권 속에서 오해되고 오용된 성서의 창조 신앙을 통하여 그 이전의 종교적 억제에서 풀려나 더욱 강화되었다.";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35. 김균진은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소유와 소비와 향락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 세계열강들의 경제, 군사, 정치적 확장욕, 자연을 객관화시키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 데카르트의 인간의 주체화와 자연의 대상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 원인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5), 33-54.

9) 역사적 기독교는 성서의 명령을 잘못 해석하여 식민 정책이나 자연 파괴를 합리화시켰다. 바르트, 볼트만, 고가르텐, 브룬너, 알트하우스 같은 현대 신학자들도 자연을 신학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자연을 자연과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

화이트 이후 생태 신학에 관련된 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¹⁰⁾ 하나는 지금까지 강조하던대로 성서에서 인간의 자연 지배 모델과 청지기 모델을 다시 강조하면서 성서를 인간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다.¹¹⁾ 이러한 견해는 화이트와 반대로 성서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성서 안에서 생태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¹²⁾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는 녹색 성서(Green Bible)에서 잘 드러난다.¹³⁾ 이에 반하여 지구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49-58.

- 10) 화이트의 주장을 옹호하는 책은 E. Klaaren, *Religious Origins of Modern Science* (Grand Rapids: Eerdmans, 1977), 비관은 D. Lindberg and R. Numbers, eds., *God and Na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참조.
- 11) 기독교에서 자연을 무시하는 신학은 폰 라드나 쿨만과 같은 학자들의 구속사 학파(Salvation History)와 관련 있다. 폰 라드는 창조는 구속사에 종속적이며 한 번도 독자적인 주제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G.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Oliver & Boyd, 1966), 131-143. 이러한 결론은 인간의 역사와 무관한 자연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관심은 생태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베스터만은 창조 신학의 부정을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돌렸다. Claus Westermann,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84), 90-101.
- 12) 성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잘 가꾸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E. C. Beisner, *Where Garden Meets Wilderness: Evangelical Entry into the Environmental Debate* (Grand Rapids: Act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Liberty/Eerdmans, 1997). 종말론적인 본문들은 자연의 파괴보다는 땅의 갱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D. M. Russell,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Hope for the Creation in Jewish Apocalyptic and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Visionary Press, 1996). 생태학적으로 무시된 본문들을 재발견해야 한다: 창세기 9:9-17(인류와의 언약 갱신); 시편 104, 148편(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창조주를 찬양함); 욥기 38-41장(인간 중심을 벗어나는 본문들); B. McKibben, *The Compacting Whirlwind: God, Job, and the Scale of Cre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D. Patrick, "Divine Creative Power and the Decentering of Creation: The Subtext of the Lord's Addresses to Job,"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 The Earth Bible 3*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1).

프로젝트(Earth Project)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생태 신학에서 성서가 너무 단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경이 항상 생태 신학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료를 더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¹⁴⁾ 지구 프로젝트는 지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의 3단계를 제시한다.¹⁵⁾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최종 권위가 성경이나 기독교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을 벗어난 생태 정의(ecojustice) 원칙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인간의 믿음과 행동을 가르친다면, 이러한 해석은 성경 해석과 같은 힘을 갖지는 못한다. 즉, 생태학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¹⁶⁾ 성서의 이야기를 땅을 강조하는 땅의 이야기만으로 읽으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범신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역시 생태 위기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은 될지언정 균형 있는 기초는 되지 못한다.

성서를 땅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로 균형 있게 보는 것은 성서

-
- 13) 녹색 성서는 지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 본문을 강조하면서 피조 세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녹색 성서는 성서에서 너무 쉽게 생태 신학을 읽으려 하고, 생태학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성서의 본문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he Green Bible* (New York/London: HarperCollins, 2008).
- 14) N. C. Habel, "Introducing the Earth Bible," N. C. Habel, ed.,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The Earth Bible 1*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0), 30.
- 15) 이러한 해석학은 성서의 저자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의 목소리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지구 과정은 생태 정의 원칙으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내적인 가치의 원칙; 2) 상호 관련성의 원칙; 3) 목소리의 원칙; 4) 목적의 원칙; 5) 상호 보호의 원칙; 6) 저항의 원칙. 연구의 삼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본문이 인간 중심주의로 쓰였다고 의심하라(suspicion); 2) 인간이 아닌 주인공을 찾아라(identification); 3) 지구의 목소리를 들으라(retrieval). 지구 프로젝트(Earth Project)의 중요 과정은 다양한 성경 본문을 생태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다. N. C. Habel,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24.
- 16) David G. Horrell, ed.,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T & T Clark, 2010), 1-9.

기자들의 특별한 관점 때문이다.¹⁷⁾ 이는 땅과 인간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견해가 모두 하나님, 인간, 땅이라는 공통 요소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간과 땅을 각각 강조하는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땅을 강조하는 이야기에 인간이 등장하지만 인간의 이야기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 연구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창 1-4장)와 홍수 이야기(창 6-9장)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태 신학의 기초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창조 이야기(창세기 1-2장)

2.1. 창세기 1:1-2:4a

창세기 1장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땅의 이야기이다.¹⁸⁾ 인간의 이익과는 상관 없이 땅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땅의 이야기(1:1-25)와 인간의 이야기(1:26-31)가 긴장을 이룬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땅, 인간의 순서로 읽는 땅의

17) 이 연구에서 필자는 구약을 말씀 전승과 현존 전승으로 읽는 방법론을 이곳에 적용하였다. 구약성서는 신명기와 신명기 문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 전승과 제사장 문헌에 나타나는 현존 전승을 가지고 있다. 말씀 전승은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토라 순종, 인과응보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인간을 강조하고, 현존 전승은 성전, 제사, 거룩 등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과 땅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이 원리를 창세기 1-9장에 적용할 때 J 문서는 신명기적인 전승을 따라 인간을 강조하고, P 문서는 제사장 전승을 따라 하나님과 땅을 강조한다. 인간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는 신명기 문헌과 제사장 문헌에서 다르게 강조되는 주제이다. 참조,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예녹서와 다니엘서』(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21-48.

18) 창세기 1장의 생태 윤리에 대하여 최근의 다음 글을 참조하라. 이은우,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18 (2012), 13-28.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땅은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생물의 탄생과 보존을 위한 터전이 된다. 1장에서 창조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1절).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3, 6, 9, 14, 20, 24, 26, 29절), 피조물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4, 12, 18, 21, 31절).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다.¹⁹⁾

창조는 공간의 창조와 공간을 채우는 존재의 창조로 이루어진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빛의 창조와 빛을 발산하는 광명이 창조된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공창과 공창에 사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창조된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땅이 드러나고 땅에 사는 동물과 인간이 창조된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세계에는 하늘, 땅, 바다와 같은 공간과 공간을 채우는 광명, 새,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이 있다. 땅이 드러난 셋째 날부터 주목할 것은 땅의 생명력이다.²⁰⁾ 땅은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체적으로 창조 활동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간(하늘, 땅, 물)은 생명체를 낸다. 땅은 식물과 동물을 내고(창 1:11-12, 24-25), 공창은 새가 날게 하고(창 1:20-21), 물들은 물고기가 살게 만든다(1:20-21).²¹⁾ 땅은 곧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창세기 1장 26-28절이 그 앞에 있는 땅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 1장에서 인간은 여섯째 날 등장한다. 2장과 달리 인간 창조를 말하기 전에 땅과

19)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24-340.

20)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땅이 그 과정에 깊이 참여한다. 땅은 창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창조의 매개자이고, 창조 협력자이다. 그리하여 인간만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다.”; Mark G. Brett, “Earthing the Human in Genesis 1-3,”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The Earth Bible 2*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0), 74-80.

21) 인간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라고 말할 때 사실 인간과 대비되는 공간은 하늘, 땅, 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인간이 주로 거하는 곳이 땅이기에 땅은 모든 공간의 터전을 대표해서 말하는 호칭으로 사용된다.

생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땅과 생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는 땅과 생물과 관련하여 소개된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는다(창 1:22, 28).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1:26),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는다(1:28).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3-25절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27절에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특별히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본문이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예전은 인간 창조를 경축한다.²²⁾

하벨(N. C. Habel)도 창세기 1장 1-25절이 땅 이야기라고 강조하지만,²³⁾ 이 이야기가 1장 26-28절과 긴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벨은 창세기 1장 26-28절이 인간이 땅에 종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땅과 긴장을 이루는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²⁴⁾ 1) 인간은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 3) 인간의 역할은 생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초점이 생물의 기원인 땅이 아니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은 인간에게 옮겨간다; 4)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인 ‘카바스’(כָּבַשׁ)는 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인간의 힘만

22) 월터 브루거만, 『창세기』,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8), 69.

23) 하벨은 1:1-25가 땅의 이야기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 창조의 과정에서 주인공은 전 우주나 인간이 아니라 땅이다; 2) 창세기 1:26-30에 나타난 인간 창조 이야기를 제거한다면 나머지 이야기는 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땅에 관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이다.” N. C. Habel, “Geophany: The Earth Story in Genesis 1,”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35.

24) N. C. Habel, “Geophany: The Earth Story in Genesis 1,” 46-47.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조정을 가리킨다. 이 단어에 부드럽거나 목자가 양을 치는 이미지는 없다; 5) 인간 이야기(1:26-28)의 방향은 계급적이다(hierarchical). 인간은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 땅 이야기는 땅을 종속적으로 만드는 인간 이야기에 의하여 차단된다. 인간은 땅을 지배하고 땅과 긴장을 이룬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자체가 이미 남용과 착취의 지배권을 향한다고 말한다.²⁵⁾ 이상적인 생태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창세기 1장은 땅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주어진 인간의 권위는 인간이 남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땅과 생물을 위한 선한 기회로 주어졌다. 이제 인간의 자연 지배로 알려진 인간 이야기(창 1:26-28)를 살펴보기로 하자.

1) 1장 26-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는 결심을 하고 인간을 만든다.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맥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다.²⁶⁾

2) 인간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자손들로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준 복과 일치한다(1:22). 이 복은 인간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복으로 인간과 생물이

25) 그의 창세기 1장 연구는 생태 정의를 강조하는 지구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인간 이야기에 의하여 왜곡된 땅 이야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서 전체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땅의 회복을 목적으로 성경을 취사선택하여 읽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창세기 1장 26-28절을 땅 이야기를 왜곡시키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합법화하는 본문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땅 이야기만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26) C. Westermann, *Genesis: Genesis 1-1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99), 146; Gerhard Von Rad, *Genesis* (London: SCM, 1972), 57-61;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257-287; 김근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194-208.

동일하게 땅을 채워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준다.

3)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받는데, 정복하라(‘카바스’)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정복하라는 단어는 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벨은 이 단어가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혹독한 지배를 뜻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복의 하나로 제시된 문맥을 고려한다면, 땅을 착취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될 리가 없다. 이 단어는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단어이다. 종을 심는 일(렘 34:11; 대하 28:10; 느 5:5), 여자와 억지로 관계 맺는 일(스 7:8)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단어는 특별히 땅을 정복하는 단어로 제사 문서(P)에서 많이 사용된다.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민 32:22);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민 32:29);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수 18:1);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대상 22:18).²⁸⁾ 인용된 예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정복은 인간이 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인용된 본문들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전제로 땅의 정복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 보편적인 인간, 창조 때 드러난 땅을 전제로 한다. 위에서 인용한 본문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제거되었지만, 창세기 1장 26-28절에서는 한 번도 인간이 점유한 적이 없는 땅의 이상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27) Habel, “Geophany: The Earth Story in Genesis 1,” 46.

28) BDB, 461; HALOT, 460.

변화되는 땅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

4) 마지막 복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다’(לָרַד)].”²⁹⁾는 것이다. 이 복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실현이다. 다스리는 대상은 땅만이 아니라 지구에 주어진 모든 공간들인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다. 다스린다(‘라다’)는 동사는 지배하다와 짓밟다는 뜻이 있다. 후자의 뜻은(을 3:13) “포도주 틀을 밟다.”라는 기능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1장 26, 28절의 문맥은 전자의 뜻으로 “다스리다”로 해석할 수 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다스리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창 1:26, 28; 레 25:43, 46, 53; 26:17; 민 24:19; 왕상 4:24; 5:16; 대하 8:10; 느 9:28; 시 49:14; 68:27; 72:8; 110:2; 사 14:2, 6; 렘 5:31; 겔 29:15; 34:4).²⁹⁾ 이 단어는 본문에서 왕을 신의 형상으로 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제왕 이데올로기가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제왕 이데올로기의 민주화를 통하여 적용되었다.³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우주 가운데 있는 생물을 왕처럼 공의로 다스리는 지배권을 받은 것이다. 정복은 약탈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권위를 부여받은 왕적인 책임, 목자의 책임을 동반하는 개념이다(겔 34:1-4; 시 72:8-14). 공의가 아닌 불의와 탐욕으로 다스리는 경우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잘못된 다스림은 비판받았다. 즉, 다스림을 선한 왕처럼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바르지 못한 왕처럼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³¹⁾

29) BDB, 922; HALOT, 1190.

30) B. W. Anderson, “Human Dominion over Nature,” Miriam Winter, ed., *Biblical Studies in Contemporary Thought* (Winchendon: Greeno, Hadden Company, 1975), 111-113; P.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34-138; N. Lohfink,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94), 1-17.

31) 본문에 나오는 한글 성경구절은 모두 『개역개정』을 사용하였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라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굶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개역개정, 시 72:8-9)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다’) (개역개정, 겔 34:4).

시편 72편 8절은 이상적인 왕이 땅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경우이며, 에스겔 34장 4절은 왕을 상징하는 목자가 다스리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이다. 그러므로 1장 26-28절에서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신 권세요 기쁨 부으심이다. 이 권세는 선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듯이 자연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도록 기대된다. 그러나 이 권세는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이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이 그 권세를 남용할 때 자연 파괴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성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스림의 권세를 남용한 인간의 책임인 것이다.

5) 1장에서 등장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더 잘 이해하게 돕는다. 인간에게 주어진 먹을거리는 채소와 열매이다(1:29). 생물에게 주어진 먹을거리는 풀이다. 이는 홍수 이후에 생물을 먹을거리로 취하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인간과 생물의 평화 상태는 예언자들이 꿈꾸던 이상이다(사 11:1-9; 65:17-25).³²⁾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1장의 명령에는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땅과 생물로 이루어진 피조물을 더 평화롭게

32) John W. Rogerson, “The Creation Stories: Their Ecological Potential and Problem,” David G. Horrell, ed.,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T & T Clark, 2010), 26.

만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

6) 창세기 9장 1-7절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땅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신다. 1장에서 생물과 인간에게 주신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는다”(9:1, 7). 새 아담인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땅을 정복하라”(1:28)는 복은 9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1장에 나온 복을 9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장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1장의 문맥을 통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표 1>.

<표 1> 창세기 1:28과 9:2의 비교

『개역개정』 창 1:28	『개역개정』 창 9: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반면에 “생물을 다스리라”(1:28)는 명령의 문맥은 변화되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다스리라”라는 표현의 동의어 반복이다. 그러나 다스림의 내용은 변화되었다.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 변화가 초래된 것은 먹을거리의 차이 때문이다. 1장에서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는 채소와 열매이지만, 9장에서는 생물이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생물은 먹을거리가 아니고 왕의 책임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었다. 홍수를 거치면서 9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물을 먹을거리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생물을 먹을거리로 취하기 위해서는 생물을 죽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한계는 있다. 생물을 피 채 먹지는 못하게 하신다. 이는 동물에 대한 무분별

한 사냥은 제한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되었다. 인간에게 허락한 권한은 생물을 멸종할 정도의 사냥이 아니라 인간의 먹을거리에 한한 허락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적절한 균형 아래에서 허락된 조치로 보인다.

2.2. 창세기 2:4b-25

첫 번째 창조 이야기(1:1-2:4a)가 하나님, 땅, 인간을 서술하였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2:4b-25)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인간의 이야기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 대신 창조주의 자리에 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가치 중립적인 세계관이다.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성서 본문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원리를 왜곡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뉴섬(Carol A. Newsom)은 이 본문(2:4b-25)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인간 중심적인 본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주장한다.³³⁾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보다 공통점을 강조하는 그녀의 시도는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인간의 눈으로 서술하는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반부에서(2:1-17) 초점은 인간의 창조와 사명 부여이다. 본문은 인간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땅은 경작할[‘아바드’(עבד)] 인간이 없어서 완전하지 않고 인간을 필요로 한다.³⁴⁾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는데 재료는

33)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2-3,”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63.

34) 비록 본문이 인간 중심이지만 땅에서 나타나는 비, 안개, 강 등을 보여주고(창

동물처럼 흠이지만³⁵⁾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넣어 사람을 생명[‘네페쉬 하야’(חַיָּה נְפֶשׁ)]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동산으로 인도하여 경작하며(‘아바드’), 지키는[‘샤마르’(שָׁמַר)] 사명을 부여하신다. 2장에서 땅은 인간의 창조와 활동의 배경이며,³⁶⁾ 인간은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존재로 규정된다.

후반부(2:18-25)에서 인간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동물과의 관계가 규정된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모두 ‘네페쉬 하야’라는 용어로 불린다는 것이다.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흠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네페쉬 하야’)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2장 19절에서 동물의 이름을 『개역개정』은 생명과 달리 생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같은 히브리어 ‘네페쉬 하야’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례를 근거로 학자들은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같은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인간과 동물이 지배나 종속이 없는 평등한 관계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³⁷⁾ 그러나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문맥을 통하여 확증된다.

‘네페쉬 하야’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만 등장하지 않는다. ‘네페쉬 하야’는 물에 있는 생물(1:20)과 땅에 있는 생물(1:24, 28, 30)을 가리키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9:12, 15, 16)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구약 성서 기자는 과일, 채소 등의 식물은 ‘네페쉬 하야’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네페

2:5-6, 10-14), 흠이 동물과 인간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된다(2:7, 10).

35) 인간과 동물이 모두 흠에서 왔기에 피조물로서의 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한 관찰이다. Newsom, “Common Ground,” 63.

36) 2장에서 땅의 이해가 1장과 달리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땅은 경작하는 인간을 기다린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도 인간이다. 첫째 강의 서술에서 금을 강조함도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서술이다.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65.

37)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65-66.

쉬 하야’)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생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인간과 다른 생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2:7a) 인간은 아직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간은 다른 생물과 같이 살아 있는 존재(생물)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생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서 다른 생물과 구별된 존재이다.³⁸⁾ 인간은 다른 생물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2:7, 19),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이지만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³⁹⁾ 2장에서 인간과 동물은 투쟁적이거나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지배적인 관계이다.⁴⁰⁾

3. 인간의 타락과 홍수 이야기

3.1. 인간의 타락(창세기 3-4장)

-
- 38) 뉴섬은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65.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은 같은 생물이지만 다른 생물과는 구별된 생물이다.
- 39) 뉴섬은 2장에서 인간과 동물을 차이가 없는 동반자로 이해하려고 한다. 인간처럼 동물도 흙으로 창조되었다(창 2:19a). 인간과 흙이 공통 기반을 가진 것처럼, 인간과 동물도 공통 기반을 가진다. 또한 인간이 동물에게서 배필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본문의 관점에서 동물은 인간보다 낫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존재이다.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65-66. 그러나 이 본문은 성서 전체와 함께 읽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앞부분에서는 동물의 이름을 부름으로 동물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뒷부분에서는 하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부부의 관계를 보여준다.
- 40) 뉴섬은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힘이 아니라 정체성의 확인이며, 인식의 문제이지 힘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Carol A. Newsom, “Common Ground,” 66. 이 관계도 역시 성서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2장에서 땅은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킬 대상이며, 동물은 이름을 부르는 관계이다. 인간에게 땅이나 동물에 대한 금지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금지된 것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자연을 직접 지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아니다. 즉, 인간의 불순종은 자연이 아닌 창조자와의 관계로만 설명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땅이 저주받는다. 3장에서 인간이 땅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땅의 저주로 나타난다(3:17).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땅이 저질로 소산을 내지 않고 소산을 위하여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과 땅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된다. 에덴동산에서 땅은 인간을 위하여 먹을거리로 과일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인간이 땀이 흘리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⁴¹⁾ 땅을 경작하는 인간의 본성은 타락 이전이나 이후에 변함이 없지만(창 2:5, 23),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땅을 착취하는 존재가 된다. 이후로 인간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땅에 거하면서 경작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창 3:23). 3장은 인간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바뀐 상황은 저주받은 땅의 반격이다.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소산을 주지만 인간의 수고를 요구하고 땅의 생명력은 소진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소산을 내는 땅에 의존적인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다.

인간과 땅의 관계는 창세기 4장에서 다르게 발전한다. 땅에 거하던 가인이 지은 죄는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땅에 피를 흘린 것이다. 이 죄는 아담의 죄와 구별되는 두 번째 원죄로 불리기도 한다.⁴²⁾ 가인의

41) J. B. Callicott, "Genesis and John Muir," C. S. Robb and C. J. Casebolt, eds., *Covenant for a New Creation: Ethics, Religion and Public Policy* (Mary-knoll: Orbis Books, 1991), 125.

죄는 인간의 피를 흘리는 죄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담의 죄는 아직 그가 땅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가인의 죄는 가인이 더는 땅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1-12). 아우의 피로 땅은 더럽혀졌다. 그리고 땅은 가인을 위하여 효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가인이 땅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인을 토해내기에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다.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과 땅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땅은 죄악의 주체는 아니지만 인간이 지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격을 가한다. 아담의 죄에 대한 땅의 반응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땅에서 소산을 위하여 수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가인의 죄 때문에 인간을 땅에서 쫓아낸다. 피 흘리는 가인의 죄는 제사 문서에서 인간을 땅에서 쫓아내는 포악함으로 설명된다.

3.2. 홍수 이야기(창세기 6-9장)⁴³⁾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는 인간 이야기와 땅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다. 인간의 이야기(창 6:5-8, 7:1)에서 홍수의 원인은 창조 이후로 반복되어 온 인간의 죄로서, 인간의 본성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6장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라아트’(רע)]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

42) N. Lohfink,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96-115.

43) 연구할 본문은 아웨스트 이야기(창 6:5-8; 7:1)와 제사 문서(창 6:9-22)로 나눌 수 있다. 아웨스트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제사 문서는 땅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각하는 모든 계획[‘콜 예제르’(קֹל יֵצֶר)]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여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인간이 지은 죄가 땅에 찼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콜 예제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도 역시 인간이 행하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홍수의 목표는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본성이 악해진 인간을 멸하는 것이다(창 6:13).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과 더불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신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다른 생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홍수 후에 심판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신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창 8:21). 즉, 홍수로 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구원 계획을 암시하신다.

홍수 이야기에서 땅의 이야기(창 6:9-22)는 인간의 이야기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인간보다는 땅을 중심으로 홍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땅의 이야기는 사람의 내적인 선함이나 악함보다 땅의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심하는 원인은 인간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다.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하마스’(חַמָּס)]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개역개정, 창 6:11-13).

홍수를 내리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이

아니라 포악함(‘하마스’)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⁴⁴⁾ 이 포악함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것과 관계있다.⁴⁵⁾ 포악함은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땅의 정결을 위하여 홍수를 통하여 인간을 땅에서 쫓아낸다. 땅 이야기는 홍수의 원인이 사람이 살인하여 피를 흘리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홍수 후에 피 흘리는 것을 금했다(창 9:4-6). 홍수는 땅을 더럽힘에서 깨끗하게 하고, 홍수 후에는 땅을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피 흘림을 금했다.

땅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땅의 관점에서 홍수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정결해야 하며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포악함이다. 인간의 포악함은 인간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땅을 더럽게 만든다. 포악함을 초래한 것은 인간이기에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 찰 경우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인간을 쓸어버리고 땅을 정결하게 만든다. 가인이 땅에서 떠나 유리한 것처럼,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림으로 땅을 정결케 하신다. 땅에게 행한 포악함이 인간을 땅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홍수 이야기에서 등장할 뿐 아니라 레위기에도 등장한다.

44) 많은 학자들이 제사 문서에 나타난 “포악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범죄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 Westermann, *Genesis*, 416;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171. 로프킨(Lohfink)은 포악함에 제사장적인 이해가 담긴 것을 간파하였다. Lohfink, *Theology of the Pentateuch*, 96-115.

45) 밀그롬(J. Milgrom)은 부정의 기원을 죽음이라고 이해한다. 밀그롬에게 포악함은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부정의 기원이 된다: “창세기에 나타난 P 문서는 ‘하마스’ (포악함, 창 6:11)라는 용어로 인류를 정죄한다. 창세기 9장의 노아의 법은 포악함(‘하마스’)에 대한 법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후에 예언자의 용례로서 윤리적인 포악함의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하였지만, 하마스는 원래 살인을 의미한다.” J. Milgrom, “Priestly Source,” 456-457; cf. T. Frymer-Kensky, “The Atrahasis Epic and Its Significance for Our Understanding of Genesis 1-9,” *BA* 43 (1977), 241-248. 포악함의 이러한 의미는 에스겔서에서 명확해진다. 피 흘리는 범죄는 포악함의 동의어이며(겔 7:22-23), 땅의 황폐함은 거주민의 포악함 때문이다(겔 12:19).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산을 더럽혔다고 했다(겔 28:16).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개역개정, 레 18:24-25, 28)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땅에서 인간이 쫓겨나지만 성서는 그전에 인간에게 땅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땅과 동물이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방법이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위하여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은 나중에 땅과 동물을 위한 규정으로 발전된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안식일을 지킬 존재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뿐 아니라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으로까지 확장된다. 즉, 인간을 위한 규정이 동물을 위한 규정으로 확대된다. 안식년은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된다(출 23:10-11; 레 25:1-7).⁴⁶⁾ 희년은 인간의 악으로 초래된 인간과 땅의 분리를 회복시킨다. 땅을 인간에게 돌려보내 인간과 땅을 회복하는 제도의 절정을 이룬다(레 25:8-34). 제사장 문헌에 따르면 유다의 포로는 바로 땅이 안식을 취하지 못해서였고, 포로가 인간에게는 비극이지만 땅을 위해서는 안식의 역할을 한다(레 26:34-35; 대하 36:21). 즉, 안식의 개념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과 짐승의 권리로 나타난다.⁴⁷⁾

46) 히브리 종교의 안식년은 근동 지방의 휴경법과 차이가 있다. “구약 주변 세계에서 휴경법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땅의 고갈을 막아 땅의 생산성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면 레위기의 안식년은 땅 자체의 휴식을 위하여 제정되었고(레 25:4-5), 이는 하나님을 위한 휴식(레 25:2, 4)으로 명명되어 땅의 휴식이 갖고 있는 신학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103-104.

47) Mark G. Brett, “Earthing the Human in Genesis 1-3,”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79-80.

4. 결론

생태 위기의 원인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기독교는 다양한 목소리로 변호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권이나 청지기직을 강조하면서 성서를 인간의 이야기로 읽으려고 한다. 또는 지구의 목소리를 인간과 대립시켜 해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을 새롭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성서를 인간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로 균형 있게 읽어야 성서학적으로 생태 위기에 접근할 수 있다. 성서에는 하나님, 인간, 땅의 조화로운 관계의 전제 아래 인간과 땅이 각각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생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성서를 땅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성서를 인간의 이야기로 읽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강조된다. 1) 땅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출현을 기다렸다. 2)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동물들과 구별된 존재이다. 3) 땅과 생물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이야기에서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 가치관이 상정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한계야말로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고 인간과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생태계의 비극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래된 환경 위기는 성서의 잘못된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

성서를 땅의 이야기로 읽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강조된다. 1)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신성화되어서는 안 된다. 땅의 한계는 하나님의 피조물 됨이다. 2) 땅은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력을 가진 생명의 터전으로 생물이 존재하고 생존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땅의 생명력은 생물을

만든 힘이기도 하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접촉점이기도 하다.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생명 속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도록 돕는다. 3) 인간은 땅에 의존된 존재로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다. 땅의 눈으로 성서를 볼 때 더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주의 공간과 공간을 채우는 생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땅에 의존된 존재로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생명력을 보존하고 인간에게 땅은 하나님의 현존을 음미하는 장소이다. 인간은 땅을 신성화할 필요는 없지만 땅을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파괴할만한 권한을 갖지는 못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이 땅의 저주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이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땅의 회복에 대한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 땅은 인간이 수고할 때만 소산을 내지만, 동시에 인간이 착취한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포악함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악의 끝은 인간이 땅에서 쫓겨나는 홍수로 예표된 종말이다. 그렇기에 종말이 오기 전에 땅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주요어>

생태 신학, 땅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포악함, 땅의 회복, 땅을 정복하라

<Key Words>

Ecological Crisis, Earth Story, Human Story, Violence, Earth Recovery, Subdue the Earth

* 접수일 2012년 8월 21일, 수정일 2012년 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30일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성경의 생태학적인 이해,” 「장신논단」 13 (1997), 21-23.
-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5.
-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에녹서와 다니엘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이은우, “창세기 1장 1절-2장 4a 절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18 (2012), 13-28.
- 월터 브루거만, 『창세기』, 강성열 역, 서울: 장로교 출판사, 2008.
- 정중호,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제사장 신학,” 「구약논단」 3 (1997), 112-113.
- Anderson, B. W., “Human Dominion over Nature,” Miriam Winter, ed., *Biblical Studies in Contemporary Thought*, Winchendon: Greeno, Hadden Company, 1975.
- Bauckham, Richard, *Bible and Ecology: Rediscovering the Community of Creation*,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2010.
- Beisner, E. C., *Where Garden Meets Wilderness: Evangelical Entry into the Environmental Debate*, Grand Rapids: Act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Liberty/Eerdmans, 1997.
- Bird, P.,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Brett Mark G., “Earthing the Human in Genesis 1-3,” NCW. S.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Callicott, J. B., “Genesis and John Muir,” J. B. Callicott, ed., *Beyond the Land Ethic: More Essays in Environmental Philosophy*,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1999, 187-219.
- Habel, N. C., ed.,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The Earth Bible 1,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0.

- Habel, N. C.,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The Earth Bible 2,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0.
- Horrell, David G., ed.,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T & T Clark, 2010.
- Klaaren, E., *Religious Origins of Modern Science*, Grand Rapids: Eerdmans, 1977.
- Lindberg, D. and Numbers, R., eds., *God and Na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 Lohfink, N., *The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94.
- Milgrom, Jacob, "Priestly Source," *ABD* 5, New York: Doubleday, 1992, 454-461.
- Newsom, Carol A., "Common Ground: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2-3," Norma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The Earth Bible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60-72.
- Patrick, D., "Divine Creative Power and the Decentering of Creation: The Subtext of the Lord's Addresses to Job,"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 The Earth Bible 3, Sheffield/Cleveland: Sheffield Academic Press/Pilgrim Press, 2001.
- Rad, G. von,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Oliver & Boyd, 1966, 131-143.
- Rad, G. von, *Genesis*, London: SCM, 1972.
- Rogerson, John W., "The Creation Stories: Their Ecological Potential and Problem," David G. Horrell, ed.,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T & T Clark, 2010.
- Russell, D. M.,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Hope for the Creation in Jewish Apocalyptic and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Apocalyptic Literature*, Philadelphia: Visionary Press, 1996.
- The Green Bible*, New York/London: HarperCollins, 2008.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Genesis 1-1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99.

Westermann, Claus,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84, 90-101.

White, Jr.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린 화이트,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 프란시스 웨퍼 편, 『환경오염과 죽음』, 김진홍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88-94.

<초록>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본 생태 신학

배정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생태 위기의 원인은 주로 인간의 욕망과 계몽주의적인 세계관과 관련 있지만 기독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생태 위기에 대한 성서학적인 진단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는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인간의 이야기로만 성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생태 신학의 성서학적인 기초를 위하여 성서(창세기 1-9장)를 인간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로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창세기 1-9장을 인간의 이야기로 읽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강조된다. 1)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고, 땅은 경작할 인간을 필요로 한다. 2)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제한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른 생물들과 구별된 존재이다. 3) 땅과 생물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창세기 1-9장을 땅의 이야기로 읽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강조된다. 1)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신성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공간이다. 2)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을 가진 생명의 터전으로 생물이 존재하고 생존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3) 인간은 땅에 의존된 존재로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다. 성서는 생태의 위기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맡겨진 지배하는 권세를 남용하여 강화되었다고 진술한다.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순종,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선한 사용이다. 동시에 이미 황폐하게 된 땅의 회복을 시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Abstract>

The Ecological Theology in Genesis 1-9

Prof. Chong-Hun Pa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reason for an ecological crisis is mainly related to the human desire and the world-view of Enlightenment; however, Christianity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it. The biblical solution for ecological crisis does not seem to be convincing, since we read the Bible only as the story of humans which puts humans in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focuses on human supremacy over other creation. I try to read the Bible both as the story of humans and the story of the earth. Being Read as the story of the humans, Genesis 1-9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1) The earth needs humans as a center in the universe. 2) While humans are restricted creatures made from earth, humans are different from other creatures in that God breathed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3) The destiny of earth and animals depends on whether humans obey God's command or not. Read as the story of the earth, Genesis 1-9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1) Earth should not be worshiped as God; however, it is a space where God is present. 2) Earth is the base of life where living creatures exist. 3) Humans depending on earth receive the blessing to subdue the earth, and the authority to govern living creatures. The Bible witnesses that ecological crisis was caused by human disobedience and was deteriorated by abusing the authority given to humans. Confronting ecological crisis, we have to focus on human obedience and good utilization

of the authority to subdue the earth and govern the living creatures. Moreover, we as humans have the duty to restore the devastated earth.